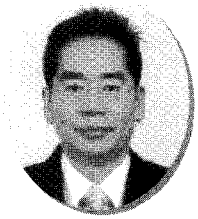
자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의 고유 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서 토기회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회의 총무 역할을 맡아 일한 지난 1년 3개월이 매우 길게만 느껴지고, 홀수 월에는 위원장회의 및 CPD 교육, 짝수 월에는 이사회가 항상 개최되고 봄 세미나 겸 정기총회, 가을기술발표회 겸 임시총회, 신년하례식 및 송년회 등이 쉬지 않고 열려서 회사업무를 보지 못하고 행사준비에 며칠씩 소비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안상로 회장님께서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근무하시고 계셔서 많은 발표회와 행사진행을 정확하게 준비시키고 추진하다보니 총무와 간사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신임 회장단의 업무파악 및 진행을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일자별, 행사별로 잘 기록해서 다음회장단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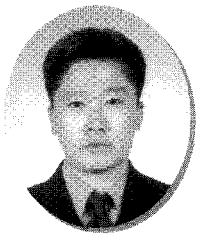
되돌아보니 늘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아쉬운 점도 많지만 금년에도 토기회가 날로 번창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발표와 심포지움 행사를 효과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회원에게 득이 되는 일을 많이 한다면 사랑하는 신입회원이 늘어나고 년 회비 뿐만 아니라 종신회비도 작년보다 더 많이 납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상 토기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적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토기회가 되고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교류의 장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총무를 비롯하여 간사, 사무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기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www.kape.or.kr, T 02-406-1707, F 02-408-1708, kape1981@nate.com)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 영남지회



**이 명 건**
(주)엠에스엔텍 대표이사



**유 상 호**
(주)길평 상무이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영남지회(이하 영남지회)는 부산, 경남지역의 토질 및 기초기술사 회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남지회는 2007년 1월 회원 18명으로 출발하여 1기 임원진으로 초대회장 고광진, 총무 김광호 회원을 선출하고 2008년까지 분기별로 총 8차례 모임을 개최하였고, 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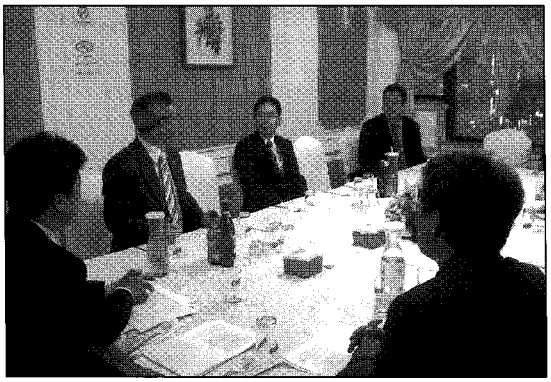


그림 1. 2009년 4월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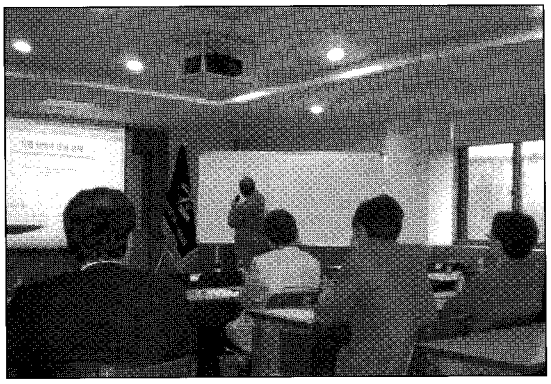


그림 2. 2009년 5월 CPD 교육

지회의 홍보, 회원간의 정보교류 등을 가졌으나 회원들의 참여가 많지 않아 왕성한 활동은 힘든 상태였다.

이후 2009년 정기총회(4월 7일 해암뷔페)에서 2기 임원진으로 회장 이명건, 부회장 김덕봉, 조복래, 감사 정진호, 총무 유상호회원을 선출하고 본회 활동의 적극적 참여와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목표로 행사마다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영남지회 구성원으로는 대학교수 5명,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32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본회 행사 참여는 물론이고 지회 CPD교육을 비롯한 자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회원간의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산학협력,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영남지회의 동호회로 골프모임을 격월제로 개최하여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꾀하고 있다.

2009년 5월 영남지회 기술사 계속교육을 부경대학교에서 지회의 고문이신 한상숙회원이 강사로 사면안정의 근본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고 회원간 토론을 진행하였다.

향후, 영남지회는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 각 기술위원회 활동참여와 본회 행사의 영남지회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본회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